

만 60세 이상 농지연금 가입 가능

농식품부, '농어촌공사·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돼 지난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지연금 지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선해 농지은행을 활용한 농업인의 은퇴계획 수립을 안정적 지원 등이다. 농지연금의 가입 시기와 관련하여 그동안 국회 토론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자녀교육 등을 위해 만 60세 이전에도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이 많

다는 현실을 고려해 가입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뿐만 아니라 최근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만 60세에서 만 65세 사이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 55세) 등을 고려해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이로 인해 보다 많은 농업인에게 연금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영이양형 상품은 지급기간이 만료되면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지

만 가입자가 지급기간 중에 사망하게 되면 연금이 해지돼 상속인에게는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기간 중 가입자 사망 시에도 담보농지를 매도하도록 개선하여 농지은행이 더 많은 우량농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농지연금 정책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지연금 제도개선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해 도입한 농지연금 사업이 1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제도운영 성과를 평가·반성하고 향후 운영수

준을 높이기 위한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의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중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 대상 우대상품,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기존 가입자 상환변경 및 중도상환 허용 등은 올해 1월 1일부터 도입·운영 중이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에 담긴 여타 제도개선 사항은 향후 추가적인 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현철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에 농지연금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에게 우량농지를 확보·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첫 거래 유스고객에 시원한 사은품 제공

농협은행, '내 아이의 금융 첫걸음' 이벤트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경민)는 농협은행과 첫 거래를 진행하는 유스고객(만 0세~18세)을 대상으로 시원한 사은품을 제공하는 '내 아이의 금융 첫걸음 이벤트'를 오는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벤트 1은 농협은행 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유스 고객(만0세~만18세)이 입출식 통장(증권통장포함) 또는 적립 한도이적금, NH이동수당적금 중 1개를 최초 신규로 가입한 경우 자동 제공되며, 해당 고객 중 300명을 추첨

해 레트로 감성 코다 카메라를 제공한다.

이벤트 2는 NH농협은행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한 후 필수 해시태그(#NH농협은행, #이벤트, #NH저축청약, #NH착한어린이, #NH이동수당)와 이벤트 콘텐츠를 본인 계정에 공유한 고객을 대상으로 100명을 추첨

하여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를 제공한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NH스마트뱅크 올원뱅크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이나 고객행복센터(☎1661-3000)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성 기자

기후변화 정보 활용 한반도 농업기후 전망 정보 '책 속'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이 '농업분야 활용을 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세화 자료 생산 기술가이드', '사과 화상병 증상 사례집', '농업인 개인보호장비 편람' 등 이달의 신간 5권을 발간했다.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토대로 한반도 농업 기후변화 전망 기술을 소개한 농업분야 활용을 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세화 자료 생산 기술가이드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 예측모델(K-ACE)의 전 지구 기후변화 전망 정보를 포함해 국제표준을 따르는 18개의 새로운 전 지구 기후변화 전망 정보를 이용해 산출한 한반도 고해상도 농업기후 전망 정보를 담고 있다.

미래 농업기후 전망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과 기후변화 관련 연구자에게 책을 배부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v)에서 파일(PDF)을 내려받아 볼 수 있다.

사과나무 생육 시기별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화상병 증상 사진과 설명 자료를 담은 '사과 화상병 증상 사례집'은 사과나무의 생육 시기별 화

농진청, 농업분야 활용 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상세화 자료생산 기술가이드 등 발간



상병 증상 사례를 사진 설명자료로 제공해 농가에서 예방하기 쉽고 현장 조사할 때 화상병 병징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 책은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볼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v)에서 파일(PDF)을 내려받아 볼 수 있다. '농업인 개인보호장비 편람'에는 ▲의복형 보호구 54종 ▲눈, 안면머리 보호구 27종 ▲호흡 보호구 27종 ▲손 보호구 26종 ▲발 보호구 15종 ▲청력 보호구 11종 ▲자외선 차단과 열 스트레스 보호구 29종 ▲신체 안전과 근력 보조장비 9종 등 총 198개 제품 정보와 활용 방법이 담겨 있다.

개인보호장비에 관심 있는 농업인, 농촌지도사 등에 책을 배부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v)과 농업인안전 365(famer.rda.gov)에서 파일(PDF)을 내려받아 볼 수 있다. 농업안전보건 중앙 데이터베이스(DB)센터에서 생산한 농업인 질환과 재해 현황을 담은 '한눈에 보는 농업안전보건 중앙DB센터'는 농업인 업무상 질병과 손상조사 결과,

전국 농업안전보건센터 자료를 바탕으로 농업인의 직업적 재해 현황과 특징 등을 농업인과 현장 전문가가 알기 쉽도록 정리해 수록했다. 자료 특성에 따라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 및 손상 통계', '농업안전보건센터 활용법'이 담겨 있다.

농촌진흥청과 관련 전문가에게 책을 배부했으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v)과 농업인안전 365(famer.rda.gov)에서 파일(PDF)을 내려받아 볼 수 있다.

임신둔 군사 사육 시설 적용 매뉴얼은 축산법 개정에 따라 임신돼지 사육 시설을 군사(무리기르기) 시설로 변경할 때 도움이 되는 책으로, 임신돼지 군사 사육 시설 소개와 도입 배경, 국의 사육 동향 등이 실렸으며, 군사 사육 시설의 종류와 선택 요령도 안내하고 있다.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에 책을 배부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lib.rda.gov)에서 파일(PDF)을 내려받을 수 있다. /최대희 기자

올 1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선정

울릭스 '백색 LED 조명' 부산시설공단서 시범 사용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은 2022년 제1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선정 결과, 도내 기업인 주식회사 울릭스의 406nm LED소자 기반 고연색성의 백색 LED 조명'이 선정돼 부산시설공단에서 시범 사용될 예정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상용화된 단계의 혁신제품을 조달청 자체 예산으로 구매 후 공공기관에서 사용, 그 결과를 기업에 피드백 함으로써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선정된 전주 소재 주식회사 울릭스(대표 안종욱)의 406nm LED소자 기반 고연색성의 백색 LED 조명은 406nm 자색기반의 인공태양 LED 광원을 이용한 조명으로 항아리러스 성능을 지닌 인체에 무해한 자연광을 제공하는 제품이다.

이주현 전북지방조달청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은 공공서비스 개선과 혁신제품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이는 곧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혁신제품 지정기업과 수요기관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 구매사업 지원 등 적극행정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대희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에수병원(에수병원)은 병원정보시스템(HIS) 솔루션 선두기업인 삼성 SDS와 차세대 통합의료정보(EMR)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첨단 ICT 활용 미래지향적 스마트병원 구축 목표

삼성 SDS-에수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계약 체결

에수병원은 병원정보시스템(HIS) 솔루션 선두기업인 삼성 SDS와 차세대 통합의료정보(EMR)시스템 고도화 추진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첨단 ICT를 활용해 미래지향적 스마트병원 구축을 목표로 하는 김철승 병원장의 2022년 비전 중 첫 사업으로, 올해 연말까지 대대적인 전산시스템 교체 작업과 선진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올해 12월까지 구축을 완료하기로 했다.

기존 HIS 교체로 사용자 중심 UI를 적극 반영하고 전산 시스템을 전면 수정해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 고도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한 각 부서별간의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처방전달시스템(OC)과 전자처방기부기 시스템 인사·급여 등의 일반행정 시스템, 전자문서 시스템 등을 통합 운영 관리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의료정보를 전자

의무기록(EMR)과 연동하여 진료 효율성과 기록 정확성을 높이며 기존의 OC·의학영상정보시스템(PACS)등과 통합 연계해 환자 기록과 자료 또한 표준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함께 진료 빅데이터 활용에도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철승 에수병원장은 "이번 통합의료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해 미래지향적 스마트병원으로서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며 "더 나아가 진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건강관리 기록시스템과 지능형 현장진료등 선진의료서비스를 먼저 제공하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대희 기자

올 상반기 신규직원 100% 지역인재로 채용

전개공, 일반 4명·공무직 1명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가 2022년 상반기 신규직원 5명 직원을 지역인재로 채용한다.

공사는 전라북도가 100% 자본금을 출자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지역 내 실업률 해소 및 청년고용에 일조하기 위해 전북 출신 인재(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가 전라북도인 자)를 대상으로 지난 18일 채용 공고했다.

이번 채용분야는 일반직 4명(일반행정 2, 회계, 토목), 공무직 1명(시설

관리)으로 총 5명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25일부터 3월6일까지이며, 이후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기타 자세한 채용사항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jdx.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사는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기업 블라인드 채용방식을 도입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해 능력 중심의 맞춤형 인재를 지속 선발하고 있다. /최대희 기자

백반증 미세천공이식술 시행 치료 가능성 ↑

전북대병원 피부과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이 난치성 질환인 백반증 환자들에게 정상 피부의 멜라닌세포를 환부로 이식하는 최신기법의 미세천공이식술을 시행해 환자들의 치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백반증은 멜라닌세포를 표적으로 하는 CD8+ T세포가 멜라닌세포를 파괴해 탈색소를 유발하는 자가면역 질환이다. 피부의 멜라닌 세포 결핍으로 피부의 색깔이 소실돼 피부에 흰색으로 보이는 탈색반이 나타나거나 때로는 피부의 모발도 희게 변해 흔히 백남으로 불리기도 한다.

인구 1~2% 정도에서 나타나는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얼굴 겨드랑이 손발 등 신체 어느 부위에도 생길 수 있으며, 피부색이 희게 변하는 것 외에 통증과 같은 다른 증상이 없어 치료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고, 병변이 더 커지면서 치료 비용과 치료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심리적 고통을 겪기도 한다. 치료방법으로 국소치료제, 광선요법, 수술요법 등이 있으나, 대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고 질환의 활동성이나 부위, 유병기간 등의 인자에 따라 치료에 불응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국소치료제의 도포나 광선요법에도 반응이 없는 불응성 백반증 환자들에게는 정상 피부의 멜라닌세포를 환부로 이식하는 수술적인 치료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백반증의 전통적인 수술적인 치료법 중 천공 이식술은 시술은 쉬운 편



이나 자갈밭모양 흉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흡입수포 이식술은 미용적으로 우수한 편이지만 시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용성도 떨어지며,

세포 이식술은 작은 양의 이식편으로 넓은 공여부위를 치료할 수 있으나, 실험실적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같은 문제로 지금까지 지역병원들의 경우 수술적 치료법을 시행하는 병원이 없었으나, 전북대병원 피부과 남경화 교수(사진)가 이식술 팀을 구성해 0.4~0.5mm 크기의 미세천공 이식술을 시행하고 있다.

미세천공이식술은 0.5~0.8mm크기의 자동화된 천공기를 이용한 수술로 최근 여러 학술지를 통해 우수한 치료 효과가 알려지고 있다. 이 수술은 흡입수포피이식술의 단점을 보완해 최소절개 방식으로 시술해 출혈이 거의 없고 생착률이 높아 회복과 동시에 멜라닌 색소가 증가하고 관절부와 굴곡진 면, 눈 주변부의 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기존의 천공기를 사용하는 피부이식술에 비해 천공크기가 더 작아 흉터가 거의 없고 회복시간이 빠르다. 또한 이 시술은 전중풍이식술로 국민건강보험에 해당되고 백반증 병변의 부위와 면적에 따른 처방 코드가 있어 보다 발전된 수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졌다. /최대희 기자